

Drupa Global Trend Report

Drupa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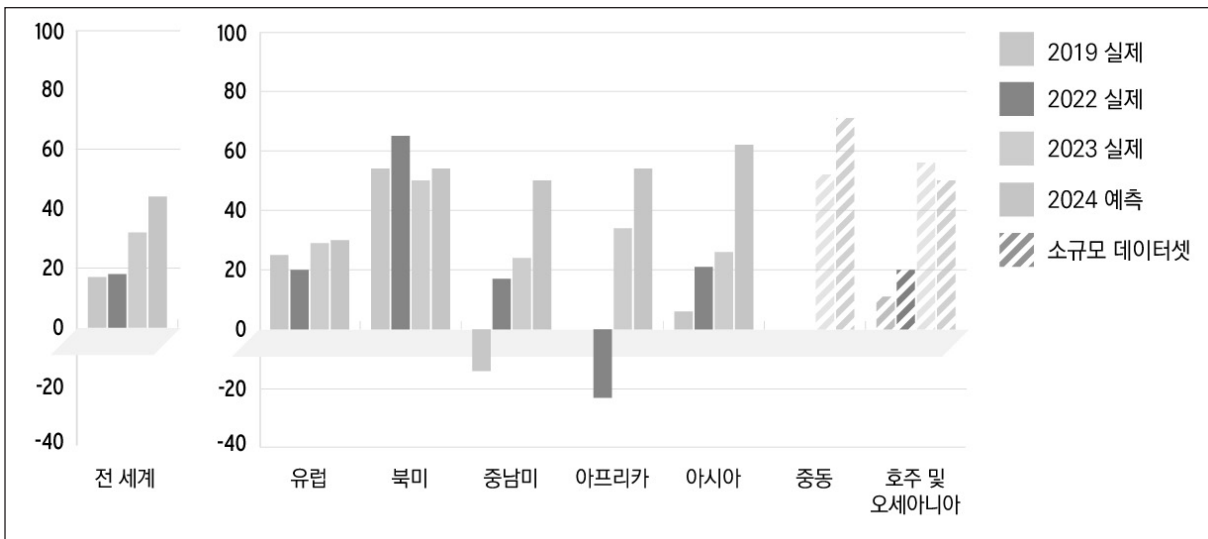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처음 나온 2023년도 보고서는 인쇄업계가 유연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발간된 것으로, 2019년 보고서보다도 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금년 보고서도 이런 기초를 이어가, 2023년의 낙관적 분위기에 이어 2024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차트 A : 귀사의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향후 1년 간의 예측은?

세계 차원에서 보면 2023년에는 44%의 업체가 자사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좋다'고 답했으며 12%는 '나쁘다'고 답했다. 나머지 44%의 답은 '만족스럽다'였다. 낙관비관 격차는 +32%, 즉 44-12=32%였다. 전체적 결과는 차트상의 녹색 기둥으로 표시해 두었으며 2022년에 비해 14% 개선된 수준이다. 이하 여러 차트에서도 이런 식의 낙관-비관 차이 값을 다룰 것이다.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12%로 2022년과 똑같은 답보 상태에 있지만 유럽 다른 지역은

[그림 1] 지역별 경제적 자신감 % 낙관론 대비 비관론 차이



+34%를 기록했다. 북아메리카는 작년의 50%에서 약간 주춤한 모습이다. 그러나 중남미는 +24%, 아프리카는 +34%, 중동은 +52% (데이터셋이 적음), 호주/오세아니아는 모두 56%로 2022년의 저조함에서 뚜렷이 회복 중이다. 예측해보자면, 호주/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업체들은 2024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보고서 부록에는 시장과 지역별로 세분화된 인쇄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와 있다. 데이터셋이 너무 소규모일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전체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다. 일부 소규모 데이터셋이 본문 또는 차트에 표시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읽어야 한다.

전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상용 및 출판용 인쇄업체들의 자신감이 괄목할 만한 회복세가 관찰되며, 포장업체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이너스였던 기능성 인쇄 분야가 2023년에 반전되었는데, 이는 데이터가 소규모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차트 B: 귀사의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향후 1년 간의 예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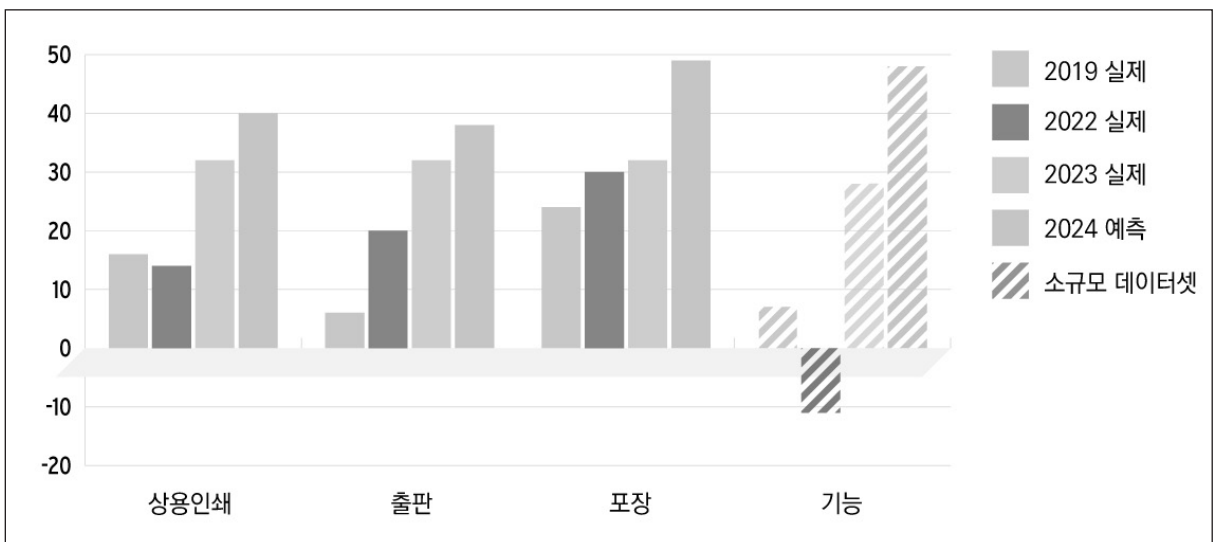
2023년에 협력업체들은 작년보다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낙관-비관 격차는 작년보다 2% 하락한 32%였다.

유럽 시장은 5% 감소한 반면 북미, 중남미, 아시아 시장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회복하고 있지만, 모든 시장에서 2024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drupa가 열리기 때문인 듯하다.

2년 연속으로 인쇄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이는 7년간 지속된 가격 하락세 이후 발생한 일이다. 매출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마진 하락

[그림 2] 시장별 경제적 자신감 % 낙관론 대비관론 차이



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시장 상황은 지역별로 다양했다. 유럽과 남미가 다소 엇갈린 상황을 보인 가운데 협력업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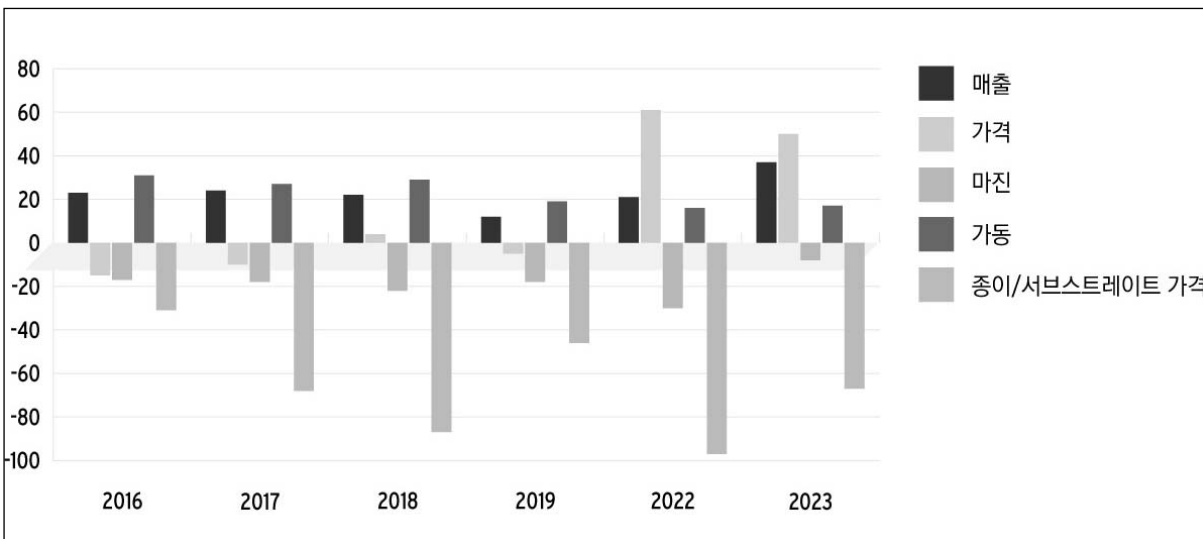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평균 상승폭은 +57%였는데, 이 수치가 2013~2017에는 -21%였다.

출판도 같은 기간 평균 57% 상승했다. 2013~2017에는 -18%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쇄 및 출판 시장 모두 더 나은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붕괴하지만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개선된 성과는 환영할 일이다.

차트 C : 지난 1년간 귀사의 매출/가격/마진/가동/서브스트레이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매년 우리는 인쇄업체들에게 인쇄 기술별 순 인쇄 물량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차트 D는 올해 주요 인쇄 기술의 시장 전체 및 주요 시장 부문별 결과를 보여준다. 옵셋인쇄는 상용 인쇄 시장에서 수년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에서 순 증가를 보이며 뛰어난 탄력성을 드러낸다. 플렉소는 포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토너 컷-시트 컬러 인쇄는 모든 시장에서 다른 모든 디지털 기술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 3] 세계 인쇄업계 실적 시계열 분석 % 낙관론 대비관론 차이



[그림 4] 인쇄 기술별 인쇄 물량 2023 % 낙관론 대 비관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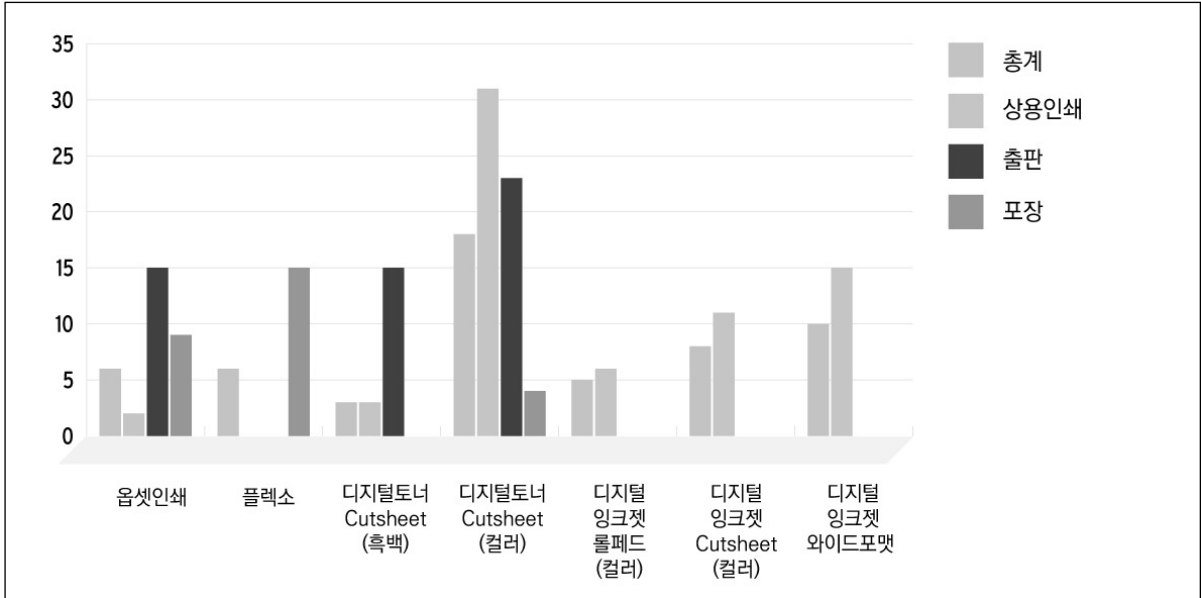


차트 D : 지난 1년간 다음 인쇄 기술의 인쇄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는가?

글로벌 디지털 도입률(매출의 25% 이상이 디지털 형태인 인쇄업체 비율)은 2014년의 26%에서 2023년에는 29%로 늘어났다. 언뜻 보면 이는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도입률 성장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2014년 이후 해당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인쇄업체 설문 참여자의 25%가 2014년에 웹-투-프린트 설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2023년의 수치는 아직도 25%이다. 일부 지역은 문화적, 기술적, 또는 그 이외의 이유로 e-커머스 비중이 적으나, 이 수치는 거의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 웹-투-프린트를 운영 중인 업체는 코로나 시기 동안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올해 이 수요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포장은 예외적인 경우로, 2022년의 대규모 성장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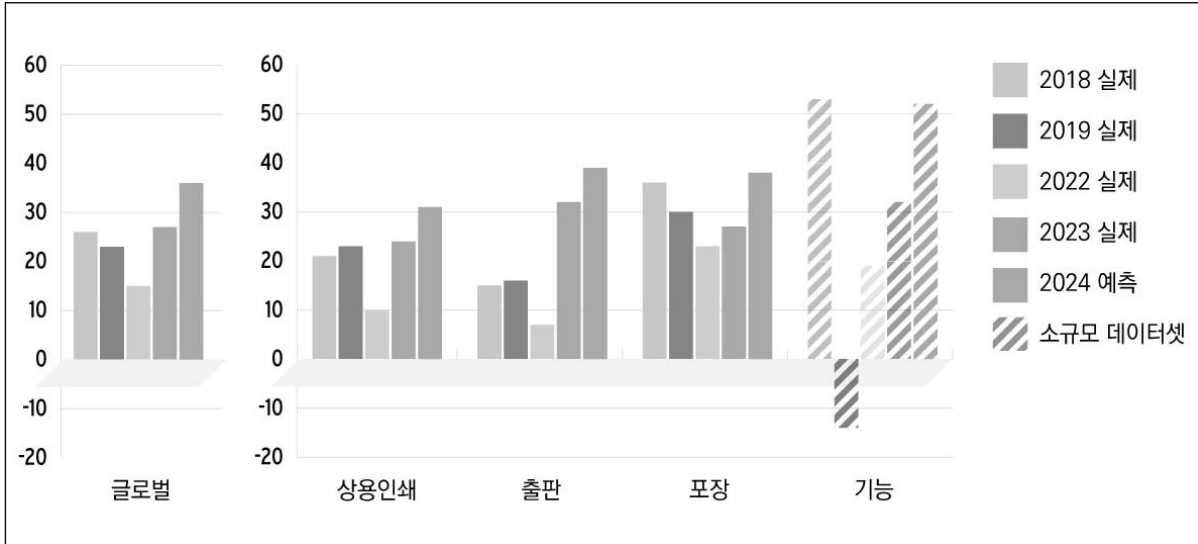
선진국 인쇄업체들의 고용 지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인쇄업체(47%)와 협력업체(39%) 모두가 인력 부족을 보고했다. 인쇄업체는 구식 프레스 운전원과 피니싱 인력이, 협력업체들은 제조와 기술 지원 인력이 가장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쇄업체(63%)와 협력업체(73%) 모두 공급 체인 이슈가 크게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둘 다 이 이슈들은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기간동안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고 22년에는 불가피하게 투자 지연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수요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drupa의 해인 2024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포장 인쇄업

[그림 5] 인쇄업체 설비투자 2023-글로벌 및 시장별 % 낙관론 대비관론 차이



체의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상용인쇄 및 출판업체들의 고무적인 수요 증가가 보인 한편, 기능성 인쇄업체 수요는 2018년 이후 볼 수 없던 수준까지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쇄 기술과 피니싱 장비가 단연코 가장 강력한 타겟이다.

차트 E : 지난 1년 간의 설비 투자 변화는? 귀사의 향후 1년 간의 설비 투자 계획은?

2014년에 트렌드 리포트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옵셋인쇄는 여전히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인쇄 기술이다.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인쇄는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시설 투자는 순 잔액 4% 상승으로 비교적 변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특히 기능성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 투자 규모 24% 상승을 계획하며 2024년에는 보다 적

[표 1] 2023 인쇄 기술 투자 타겟 - 글로벌 및 시장별

	글로벌	상용인쇄	출판	포장
1위	옵셋인쇄 29%	디지털 잉크젯 와이드포맷 33%	옵셋인쇄와 디지털 토너 Cutsheet	옵셋인쇄와 플렉소 (35% 동률 1위)
2위	디지털 토너 Cutsheet 컬러 20%	디지털 토너 Cutsheet 컬러 31%	컬러 (32% 동률 1위)	
3위	디지털 잉크젯 와이드포맷 19%	옵셋인쇄 및 디지털 잉크젯 Cutsheet 컬러 24%	디지털 잉크젯 Cutsheet 컬러 16%	하이브리드 옵셋/플렉소/디지털 (21%)

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타겟 중 세일즈 채널 추가, 효율성 강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이 선호되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거래가 점점 더 평상시 패턴으로 회귀함에 따라 변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인쇄업체와 협력업체 모두 성장 동력으로 다각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그 어떤 때보다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경제침체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47%)로, 코로나의 영향(41%)보다 높았다. 그러나 1, 2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대답이 상이했다. 미국 인쇄업체들은 정치적인 불안정(52%), 아프리카는 통화 이슈(51%), 호주는 환경 문제(33%), 아시아는 무역 전쟁(23%), 북미는 삶의 질(32%)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시장의 힘이 더 중요하다(43%)는 의견과 사회경제적 힘이 더 중요하다(46%)는 의견으로도 갈렸다.

시장 섹터를 분석하면 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로서 제품의 다양성과 시장 조건이 최선의 투자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갔다.

상용 인쇄 시장의 경우, 시장과 서비스 분야 모두 다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본 중 출판업체의 비율은 2014년 이후 반으로 줄어들었다(2014년 30%, 2023년 15%). 이들이 참여하는 시장도 변화하였는데, 신문, 잡지, 카탈로그 시장은 감소하였으나 다양한 형태의 책 출판 시장은 늘어났다. 포장 인쇄업체들은 인터랙티브 프린트처럼 높은 부가 가치 포장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보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특히 플렉시블 인쇄업체들에서 강하다.

우리 표본에서 기능성 인쇄업체들의 비율은 낮지만, 스크린 및 토너로부터 잉크젯 인쇄로의 전환은 뚜렷이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많은 시장 및 사회 경제적인 리스크와 과제가 있지만 전 세계 인쇄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은 미래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가격과 매출은 견조한 반면 마진 축소는 그 어떤 때보다 적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가 호조를 유지하느냐이다.

아마 가장 고무적인 점은 상용인쇄 및 출판업체들의 자신감 상승일 것이다. 이들 업체는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적응하면서 보다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포장 인쇄업체들은 지속적인 수요를, 기능성 인쇄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으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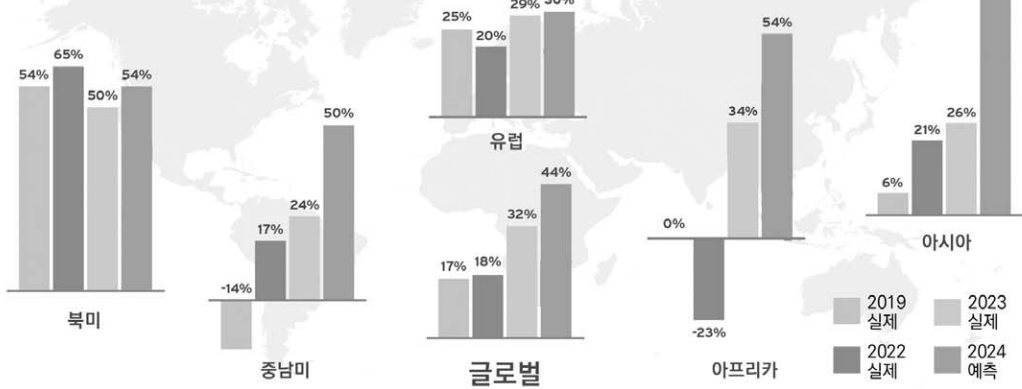
설비 투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4년은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drupa 2024에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잘 드러나는 그리스의 한 인쇄업체 응답자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디지털 툴 사용을 선호하지만 눈에 띄는 품질의 인쇄 제품(파인 프린팅, 고급 바인딩 등)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종류의 인쇄 섹터는 만지고, 느끼고, 소장하고 싶은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특징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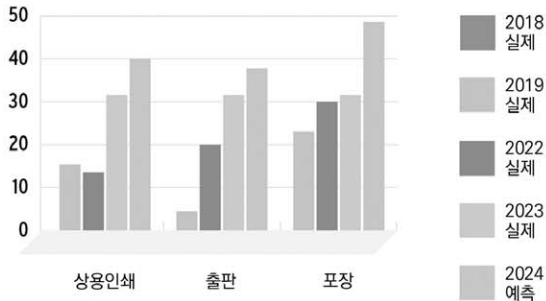
drupa 인쇄업체 경제적 자신감 조사 2023-글로벌 및 지역별

% 낙관론 대 비관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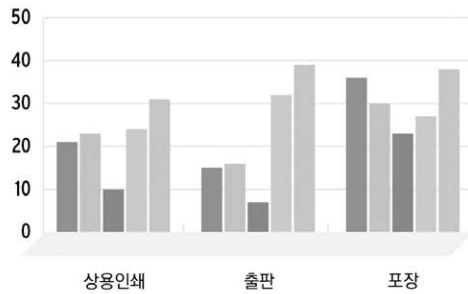
drupa 인쇄업체 경제적 자신감 조사 2023-시장별

% 낙관론 대 비관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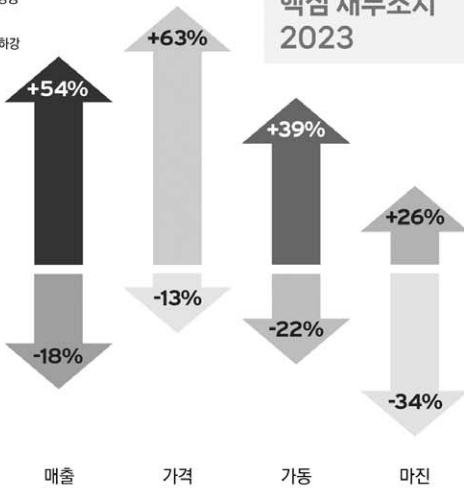
인쇄업체 설비투자 계획 2023-시장별

% 낙관론 대 비관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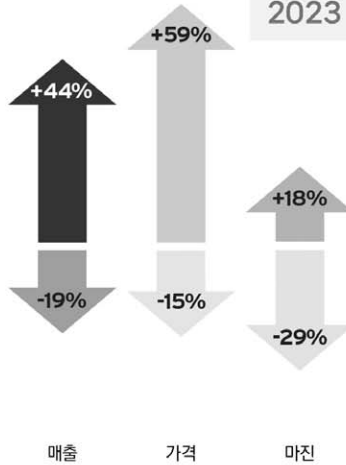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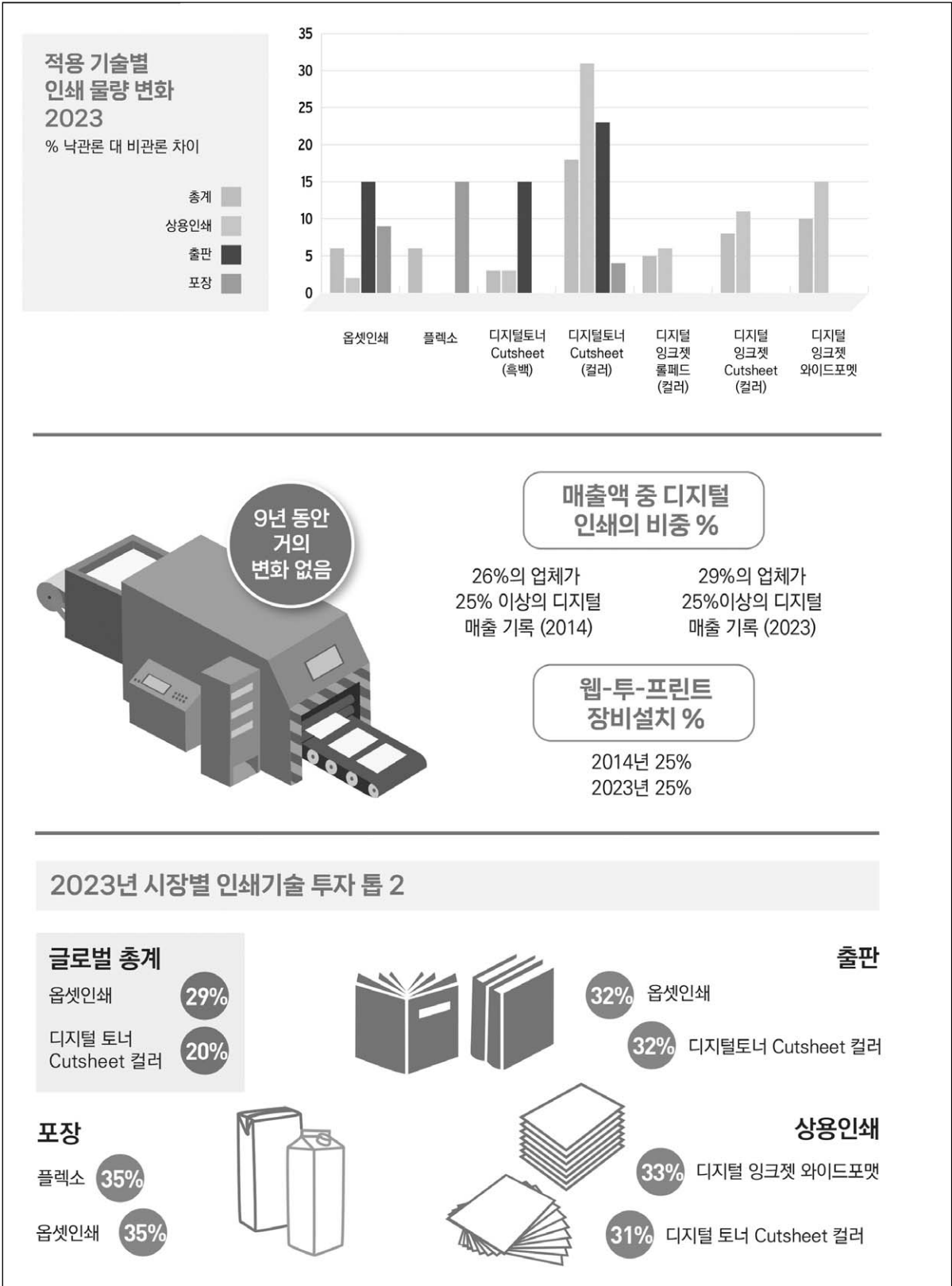
↑ % 상승
↓ % 하락

인쇄업체가 취한 핵심 재무조치 2023



협력업체가 취한 핵심 재무조치 2023





글로벌 경제 전망 - 강한 변동성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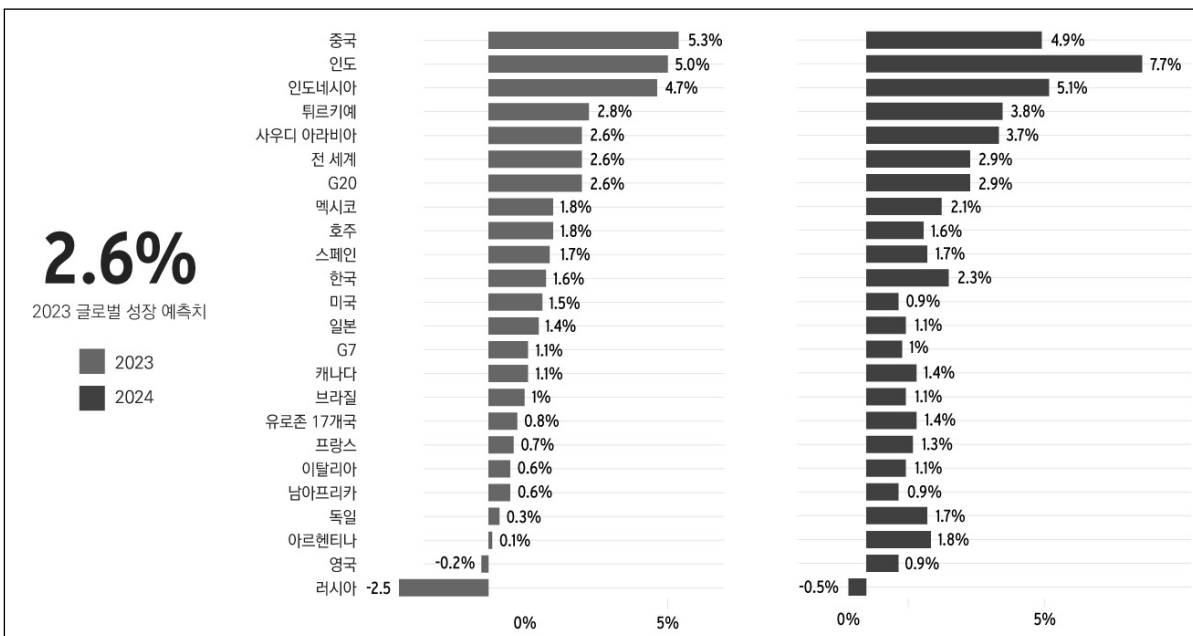
2020년 초 3년이 2010년대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는 10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팬데믹을 겪었고, 이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경제 전체의 문을 닫고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펼쳤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를 재시작하고 공급 체인을 재건하는 비용과 맞물려 40년 이상의 기간 중 가장 높고 오래 지속된 글로벌 인플레이에 불을 지폈다. 중앙 은행들은 수십 년간 가장 공격적인 글로벌 금리로 대응해야 했다. 그 결과로 금융 분야의 위기와, 신용 경색 및 2023년 또는 2024년의 경제 침체 우려가 깊어졌다.

이런 상황은 향후 수 년간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지속될 수 있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더 짧아지고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각국 정부들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세계는 제한적 공급과 노동 시장 변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제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제적 여파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의 미미한 성장, 잡기 힘든 인플레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상당히 취약해졌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경제 전망은 악화되었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기후 변화 가속화 등이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성장은 2021년 6.0%에서 2022년 3.2%, 2023년 2.7%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2.9%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 위기 및 코로나가 극심했

[그림 6] 2023~2024 실질 GDP성장 예측 전년동기대비, %



던 기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 수치이다. 통화 긴축 정책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글로벌 성장은 트렌드 이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거의 공황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성장은 침체되었다.

주요국들은 확연하게 약화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GDP에서 공공 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과의 격차는 특히 재정 지원 철회와 성장 회복에 힘입어 지난 2년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크다. 상품 가격 하락과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인해 일부 낙관론이 떠오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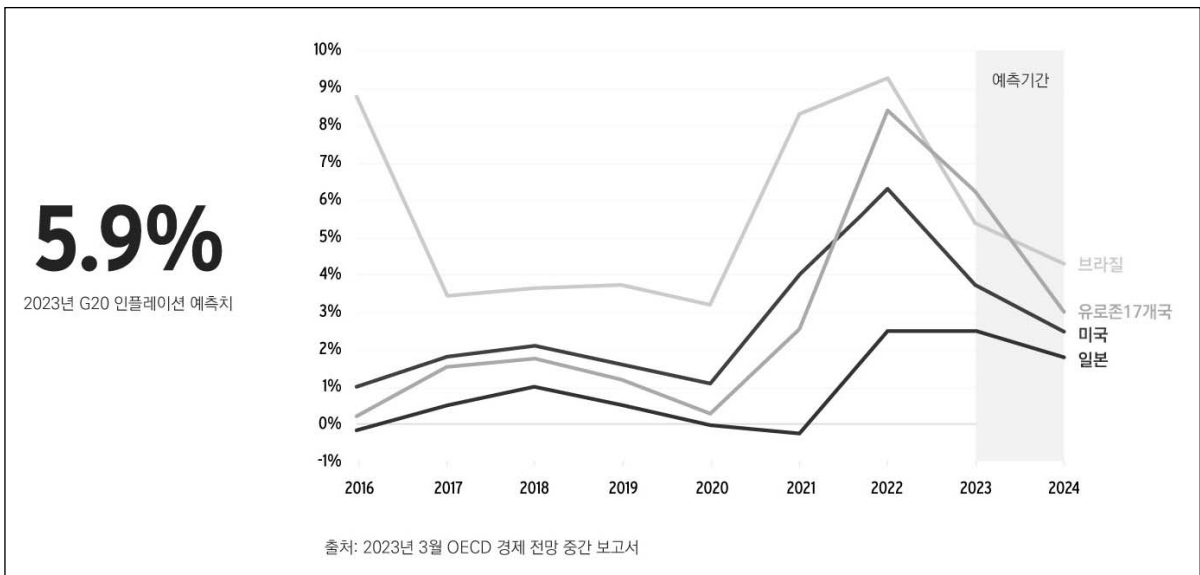
트레이드 오프 관리와 인플레이션 대응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은 다수의 불확실성에 맞서 인플레이를 잡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이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잡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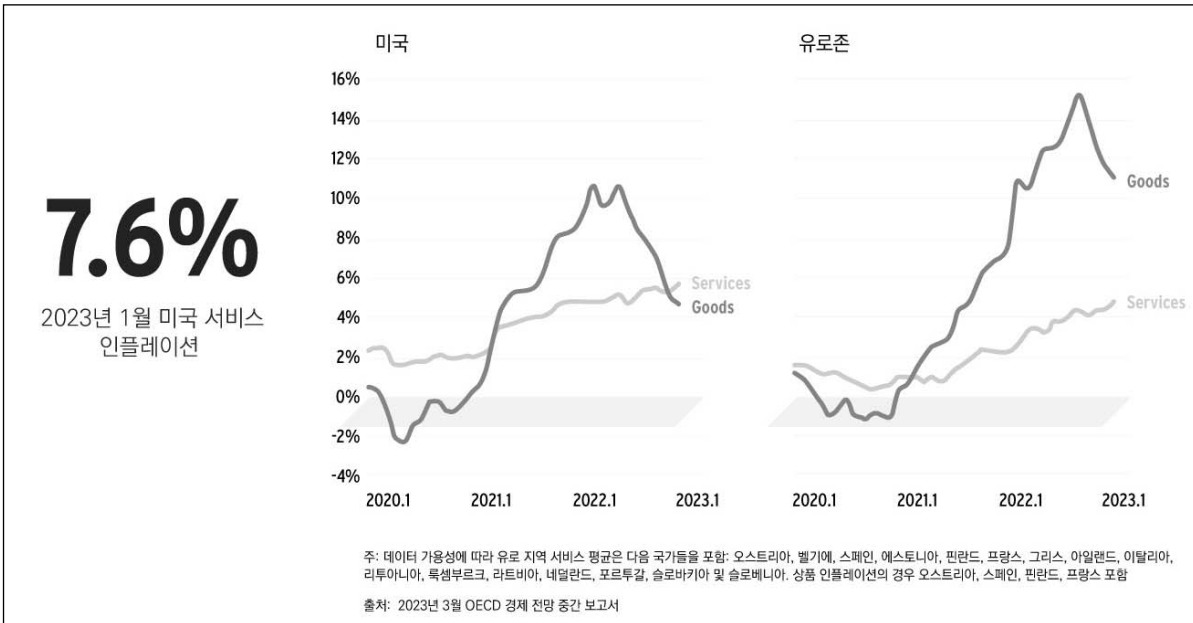
에너지 가격 하락은 부분적으로 유럽의 겨울이 따뜻해서 가스 비축 수준이 유지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상품 가격상승은 점진적인 수요 정상화와 포스트 코로나 공급 체인 병목 현상 완화로 인해 완화되기 시작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는 강력한 서비스 가격 상승과 노동 시장 경직으로 인한 비용 압력으로 인해 계속 오르고 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 기대와 특히 선진국 경제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해 평균 글로벌 인플레이는 2022년 7.5%에서 2023년 5.2%로 하락이 예측된다.

[그림 7]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그림 8] 여전히 상승 중인 서비스 인플레이션, %, 전년동기대비 변화



미래 성장 촉진이 최우선 과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주요 관심사이다.

2023년과 2024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수요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간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 지역의 성장도 2023년에 낮을 것으로 보이나 하락한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 감소로 인해 성장 모델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2024년의 평균 연간 성장율은 2023년의 예측치인 0.8%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도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 이후 0.9% 상승을 기록하며 2024년에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인 한편 금리 정책은 고수할 예정으로, 2023~2024 기간에 1~1.5%/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호주는 중국의 성장 회복 시 수혜국으로서, 이 혜택이 금융 경색의 악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주요 경제에서 저고용률, 고공실률, 고인플레이 상황으로 인해 임금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임금 상승 속도는 안정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임금 상승은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며, 목표 수준으로 회귀 중인 인플레이션과도 맞지 않는다. 현재의 취약한 기저 생산성과 성장을 감안하면, 이는 기업 이익 마진을 줄여야만 실현 가능하다.

많은 선진국 시장은 낮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다. 팬데믹 이후, 고용의 성별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선진국에서의 유연한 근무 시간과 원격 근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신흥 시장에서 증가하는 낙관론

아시아의 신흥 시장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 침체에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회복되고 있으며 인플레이 압력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은 올해 5.3%로 회복된 뒤 2024년에는 4.9%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타이트한 재정 정책 환경 속에서 FY 2023~2024기간에 약 6% 성장한 뒤, FY 2024~2025 기간에는 약 7%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2023-2024 기간에 연간 4.7-5%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브라질, 남아공 등 기타 신흥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2년간 약 평균 1%/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있었던 지진으로 터키의 경제 성장은 주춤했으나, 재건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1년 전체 성장률이 2023년에 2.8%, 2024년에는 3.8%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경제 및 금융 제재 때문에 부채와 외부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의 생산량은 올해와 내년에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

주요국들은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개도국의 전망은 그렇지 않다. 전세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다수의 신흥 시장 경제들은 부채 상환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적자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품 수입국 또는 부채와 외부 수입 통화 구성 간 불일치가 있는 국가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팬데믹 이전 10년 기간 동안의 양적 완화와 글로벌 잉여 유동성으로 인해 많은 개도국에서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다.

아프리카와 남미, 카리브해 국가의 1인당 평균 GDP 성장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적인 성장 저하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이들 지역의 성장은 팬데믹 이전 20년 간 기록된 평균 3.1%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투자 성장, 높은 부채 부담과 취약한 경제, 예측 불가능 기후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암울한 경제 성장 전망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함께 양적 긴축으로의 전환은 많은 개도국, 특히 자본 유출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지 균형 및 이들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낮고, 재정적 제약은 증가하면서 각 정부들은 교육, 보건,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저소득 경제는 특히 부채 부실 위기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IMF의 저소득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69개 평가 대상국 중 절반 이상이 부채 부실 상태이거나 높은 부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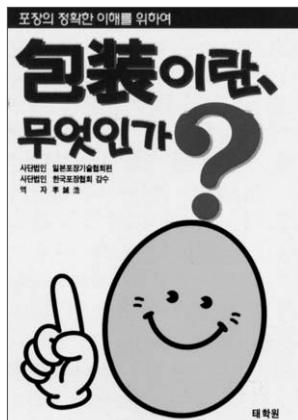
터널 끝에 보이는 한줄기 빛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인플레이 감소, 대부분 주요 중앙 은행들의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과 2024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목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성장을 이루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래 충격에 맞서는 회복탄력성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의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기후 변화는 가장 큰 미래 충격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크며, 모든 국가들은 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격동의 3년이 지난 후, 이제 폭풍이 잦아들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일부 기업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비단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더욱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으며, 효율적이고 앞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다.

일부 기업들과 시장 분야는 완전히 변화할 것이나, 지속적인 적응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은 변하지 않는 성공의 기반이다. 인쇄 산업은 지난 20년 간 디지털 인쇄와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로서 인쇄 업계는 미래에 시장의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든 이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서적 안내

포장이란 무엇인가?

국내 포장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만한 신간 ‘포장이란 무엇인가’가 출간됐다.

포장의 역사와 일반적인 지식,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했다. 한편, 대표적인 포장재료를 선정해 그 성질과 용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포장전반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기도 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2,000원

· 구입 문의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